

## 전북

'무주 반딧불' '김제 지평선' '순창 장류'

## 대한민국 대표 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 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 '순창 장류축제'가 201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2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도내 축제 가운데 '무주 반딧불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 '순창 장류축제'를 우수축제로 선정했다.

특히 '무주 반딧불 축제'는 13년 연속, '김제 지평선 축제'는 8년 연속, '순창 장류축제'는 3년 연속 정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 반딧불축제=반딧불축제는 방문객이 72만명에 이르고 662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반딧불축제는 무주군내 각읍면 주민들이 개막행사부터 안성 낙화들이, 무풍 기절들이, 무주 속세우기, 부남디필방아막이들이, 쑤다리밟이 등 전통놀이 시연과 행사장 식당 운영 등에 참여하면서 민간 주도의 축제라는 인식을 안겼다.

또한 정형화된 개막식 형태에서 탈피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한편의 공연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제 지평선축제=국내 유일의 비경 지평선과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중심으로 김제의 역사성을 담아내며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김제 지평선축제는 한국 농촌의 독특한 색깔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대동 한마당 축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적인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 축제협회(IFEA)에서 주관하는 '페너 클 어워드' 3개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순창 장류축제=장류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발효식품과 장류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 장류 산업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 특히 고주장 진산행렬, 전국 다문화가정 맛 경연, 메주 터널 등의 독특한 프로그램과 단풍 명소인 강천산을 연계해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끝마다 구간 보강공사 과정에서 공사 원과 과다 산정해 예산 70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새만금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농어촌공사 차장 1명에 대해 징계를, 다른 차장 등 3명에 대해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방조제 끝마다 구간 보강 공사를 추가 시행하면서 제3차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아닌 공사 계약업체에 공사원과를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210명·19%)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210명·19%) 등 지역을 상징하는 '황토현'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선호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74%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념일 제정 시 고려사항으로 '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기준이 제시'(46%) 돼야 함을 우선으로 꼽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에 동학농민혁명 명칭변경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

사업으로는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41%, 유적지 복원 및 기념물 설치 40%로 나타나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보다 역사적 의미 담아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시가 '황토현 동학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는 그동안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인터넷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총 1509명(남성 931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명칭변경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48%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결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서 87%가 '잘 알고 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66%가 '관심 있음'으로 답했다.

앞으로 정읍시가 주력해야 할 선양